

9월 시

확인 ☆ ☆ ☆ ☆

1. 2024. 9. 25. (수) 15:05까지	2. 2024. 9. 25. (수) 15:05까지
엄마야 누나야 김소월	어떤 마을 도종환
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	사람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.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물바가지 떠 담던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그 물로 쌀을 씻어 밥 짓던 냄새 나면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. 사람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.
3. 2024. 9. 25. (수) 15:05까지	4. 2024. 9. 25. (수) 15:05까지
굴뚝 윤동주	별 이병기
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동기몽기 웨인 연기 대낮에 솟나. 감자를 굽는 게지 총각애들이 깜박깜박 검은 눈이 모여 앉아서 입술에 꺼멓게 숯을 바르고 옛이야기 한 커리에 감자 하나씩.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살랑살랑 솟아나네 감자 굽는 내.	바람이 서늘도 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달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 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뉘 별이며 내 별 또 어느 게요 잠자코 호올로 서서 별을 헤어 보노라